

충청의 정신 · 충청의 역사 · 충청의 문화

Spirit of Chung-cheong, History and Culture of Chung-cheong

김승환 / 민예총 청주시 지부장, 충북대 교수
by Kim Seong-Whan

충청의 역사, 충청의 문화

조선 중기에 이종환은 18세기초의 「택리지」에서, “물산(物産)은 영남·호남에 미치지 못하나, 산천(山川)이 평평하고 아름다우며 한양 남쪽에 가까운 위치여서 사대부(士大夫)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代)로 서울에 사는 집으로서 이 도(道)에다 전답(田畠)과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 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는 집이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에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고르면 가장 살 만한 곳이다.”라고 충청도에 대해서 평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강조되고 있는 충청도적 특질은 ① 사대부의 주거지라는 것과 ②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형태적으로 유사한 풍속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종환은 ‘서울 이외의 지역 중에서 가장 살만한 곳’이라는 규정을 내렸다. 바로 그의 이 말, 즉 물산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지만 살기가 좋다는, 모순처럼 들리는 이 규정 속에 충청도의 역사 문화적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경제보다도 지리적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중앙집권제 하의 정치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며 양반들이 근거지를 마련했다는 것은 양반이란 신분의 중요성과 왕의 직할지적 성격을 가진 관료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자연적 환경이나 경제적 조건보다도 정치나 문화를 중요시한 이 측면이야말로 충청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

어야 한다. 그렇다. 충주와 청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한 충청도는 봉건시대 정치와 문화의 앞마당이었다. 충청남도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충청북도도 고려시대 이래로 왕(王)의 직할지(直轄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다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유교의 덕목에 따라 정치를 담당하던 계층이 바로 양반이다. 이종환이 말했듯 많은 양반들이 충청도에 근거지를 두었고 그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양반의 수효가 많아진 것이고 그 결과 이 지역은 양반의 고장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충주와 청주 사람들은 양반이라는 신분적 자부심이 강하며 그래서 형성된 양반 문화의 특징이 이 지역 정서라고 믿고 싶어한다. 대부분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며 아찔한 행동거지와 형식을 중시하는 경향은 바로 이 양반유교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편 충주와 청주를 일컬어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충청도 = 맑은 바람 같고 밝은 달과 같다”는 시적(詩的)인 묘사는 원래 자연지리적 특징을 일컫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성정(性情)을 규정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맑은 바람 밝은 달’을 가진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충절(忠節)의 고장이라는 식의 규정은 왜 생겼을까? 한강과 금강 그리고 소백산맥과 차령산맥을 끼고 있는 지리적 요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접경이라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중앙의 직할지라는 정치적 요인이 합쳐져서 ‘청풍명월의 고장’ 또는 ‘산자수명한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충북이 양반의 고장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봉건적이며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상류계층 중심의 양반문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공유(共有)하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자랑만해서는 곤란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성 또는 평민이었으며 옳지 않은 일에 항거(抗拒)하는 저항의 정신도 강했다. 또한 이 지역에 양반문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평민문화, 민중문화도 있었고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과 아울러 저항의 정신과 진취적인 기상도 높았다. 고급문화인 양반문화에 대립하는 서민문화 또는 민중문화는 양반문화와 함께 우리 지역문화의 토양(土壤)이면서 실체였음을 이제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충주시 전경



청주시 전경

충주 - 중원의 정신, 청주 - 서원의 정신

충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한강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환경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이제까지 남한강과 소백산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성이 충주의 과거를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충주의 역사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주는 삼한 중 마한에 속했고 근초고왕 시절에 백제가 낭자곡성(娘子谷城- 충주)을 점령한 후 신라가 죽령을 통하여 북으로 진출하려 하면서 곧바로 격전지로 변했다. 후에 고구려도 충주의 지리적 중요성을 깨닫고 국원성(國原城)이라 명명하고 이곳에 고구려비를 세웠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주가 삼국의 접경이면서 신라 백제의 문화가 혼합한 남방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충주는 신라 백제의 남방문화 외에 고구려적인 북방 문화적 특징도 가미되어 있다. 충주는 고구려 장수왕과 진흥왕 시절에는 국원성 또는 국원소경으로 불렸으며 신라 경덕왕 시절엔 중원경으로 신라의 중앙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졌고 고려 고종(1254) 시절엔 국원경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태조(1395) 시절에는 충청좌도의 중심지였다. 1896년 고종 33년 지방관제 개편 때에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였다가 1908년 도청이 청주로 이전하면서 군과 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역사의 고장 충주엔 우륵과 김생 그리고 임경업 장군과 신립의 원혼이 살아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동요 시인인 권태응의 나라사랑이 전하고 있다. 남한강과 새재의 자연을 역사적 관점에서 시화(詩化)한 신경림은 이 고장의 정신을 대표하는 뛰어난 민족시인으로 충주의 자람이다. 청주는 충주와 마찬가지로 원삼국 시대의 마한(馬韓) 땅에 속했다. 원삼국 시대에 대한 학계의 이견(異見)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한이 청주 일대를 근거지로 했음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족국가 마한이 백제 고구려의 각축지에서 신라의 중요한 행정 거점으로 발전한 것은 신문왕 5년(685), 5소경 중의 하나인 서원 소경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757년(신라 경덕왕 16년) 서원경으로 승격되었고 940년(고려 태조 23년) 청주로 개칭되었다. 1018년 청주목이었고 그후 양광도에

속했는데 당시에 이미 조치원, 전의, 청천까지를 아우르는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였다. 1395년 양광도지역 중 한 부분이 충청도로 바뀌면서 충주목과 함께 충청도를 이루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1895년에는 청주군으로 재편되었고 1908년에는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략 그 무렵부터 충청북도의 정치와 경제는 청주 중심으로 옮겨왔다. 충주시민들에게는 일종의 박탈감을 안겨주면서 그 반작용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지향적인 측면을 보이도록 만들었다. 반면 청주는 청주대로 서원경이었다는 역사적 자긍심 외에 현대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배타적 독점성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학문과 예술의 고장이라고 전해오는 명성은 흥덕사지 발굴로 더욱 높아졌으며 신체호 손병희 한봉수를 비롯한 수많은 의인들이 이 지역의 정신을 드높였다. 특히 민족의 스승인 단재는 민족자주, 민족자강의 사상을 설파(說破)했다. 단재의 사상은 봉건양반의식이 긍정적인 민족자존의 의식 또는 민중사상으로 변화하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산업화와 발맞추어 청주는 크게 변모하였다. 문화와 학문의 고장이면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반작용으로 주변의 농촌인구를 흡수하여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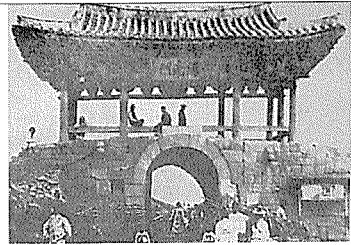
충주와 청주는 오랫동안 상대적 경쟁관계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에 놓여 있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두 지역의 갈등과 화합 또한 오랜 역사의 산물이다. 논자는 이에 대해 제도의 사회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중앙집권제도 하에서 중앙은 강력한 인력(引力)으로 지방을 통제해 나갔고 지방과 지방들의 관계는 중앙의 인력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봉건 관료제도는 경제나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삶의 하부구조를 규정하면서 충주와 청주의 동질적이고 이질적인 요인들을 확대 재생산해 냈다. 충청도적 특질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충주와 청주는 협력과 보완의 관계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배타적 동질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Irony)라 할 것이다.



忠清道 五十三官



일제시대 청주 변화가



청남문(1920년대 옛 청주읍성의 남문)

충주와 청주의 인정투쟁(認定鬭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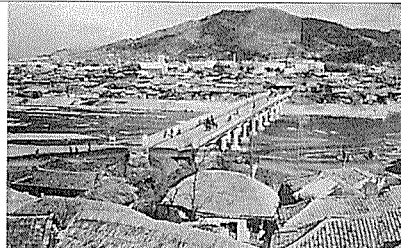
헤겔(GWF Hegel)은 정신현상학에서 인정투쟁이란 용어를 쓴 바 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목숨을 건 인정투쟁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사 회나 인류역사도 바로 이 인정투쟁의 역사였다는 것이 대 학자 헤겔의 관점이었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인간이나 사회나 존 재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해석한 음미해 볼만한 개념이다. 그래 서 우리는 충주와 청주를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고 본다. 충주와 충주 지역 시민들은 청주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 청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반면 청주와 청주시민 또한 그러하다. 충주와 청주는 오랜 중앙집권제 하에서 대등하면서도 경쟁적인 지위를 반복했 다. 이 문화권에 사는 지역인들은 서로가 자신의 충청적 정통성 을 주장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 현상은 표면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선의(善意)의 경쟁을 통한 두 지역의 의미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 물론 두 지역의 배타성은 지역내의 특성일 뿐이며 외면적으로는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역사단위 로 존재하고 있음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 당연 한 사실이다.

이러한 두 지역의 고유성과 공통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 지역의 문화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1970년대 들 어서 충주와 청주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중원문화로 담아내려 는 시도가 있었다. 이른바 5대 문화권인 신라문화권, 가야문화 권, 백제문화권, 영산강문화권과 아울러 중원문화권이란 용어 가 정립되고 학계에서 중원문화의 특징을 규명하기 시작한 것 이다. 이 용어엔 국토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의미도 담겨 있고 삼 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중원지역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실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우리 지역의 문화를 대중원문화권 으로 설정한다면 그 하위 영역으로 충주 음성 단양 제천을 중심 으로 하는 중원문화권, 보은 옥천 영동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유 역문화권, 청주 청원 괴산 진천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문화권 등 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서 청주지역은 독자적

인 서원문화권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립(定立)되어 있지는 않다. 이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 화적 동질성은 중용(中庸)의 정신이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현재 충주 청주의 문화적 기반을 이루 고 있다. 충주 청주의 문화는 고급문화/하급문화, 양반문화/서 민문화, 엄숙주의/신바람, 북방문화(고구려)/남방문화(신라 백 제), 백제문화/신라문화, 전통문화/외래문화, 세계적 보편주의 지향성/지역적 특수주의 지향성, 농경문화적 특징/도시문화적 특징, 중앙지향성/지역지향성, 문화엘리트/문화시민, 건전한 민 족문화/소비적 퇴폐문화 등의 복합적이고 대립적인 특질을 나 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거 역사문화의 특징은 일제강 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변모했 다. 식민지 이식문화(移植文化)와 민중의 저항문화가 대립하던 시기를 지나 반공문화, 군사문화 그리고 성장제일주의 문화로 이행해 갔다. 1960년대 이후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갔다. 눈물 을 뿌리면서 서울로 미국으로 사라졌다. 작별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한다. 근대화란 이름 하에 고향을 등지고 떠난 우리 삼촌과 형제들... 살기 어려워진 농촌을 등지 고 도시로 도시로 몰려간 이모와 자매들... 1909년에 간행된 「한국충청북도일반(韓國忠淸北道一斑)」에는 당시의 충북인구 504,885명 중 충주군이 80,406명, 청주군(현재의 청원군 포 함)이 85,006명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98년 현재 청주는 약 55만 충주는 21만이니 도시화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충북의 지형도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경제개발의 결과인 도시화로 충 주와 청주는 중소도시로 변모한 반면 주위의 농촌은 붕괴되었 고 농경문화에 바탕을 둔 전통문화는 이질적인 서구문화로 대 치되어 갔다. 농촌사회에 기반을 둔 농경문화는 근대의 도시문 화로 바뀌면서 시민계층이 등장하여 서구적 경향을 띤 시민문 화로 이행해 간 것이다. 이러한 도시(서울)의 횡포는, 아니 정확 히 말하면 제1세계 금융자본의 폭력은 역사적으로 우리 내부의 민중성과 민족성을 발견하는데 기여했다. 부당하게 억눌리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의식이 팽배하면서 비판적 시민 (즉 민중)의식이 대두했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민족의 손으로



1930년대 충주



1960년대초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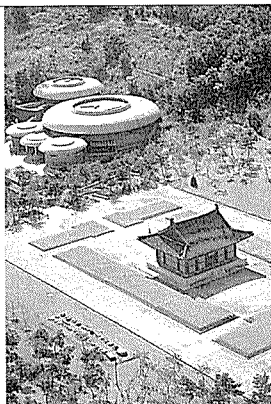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直視)하면서 민족적 의식이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는 서울 또는 국가권력의 강한 통제 아래에 놓이고 특정한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홍보로 전락(轉落)한 경우마저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문화예술도 많이 변모했다. '지역'과 '지역문화'란 개념이 등장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건축 바깥에 있는 사람의 건축에 대한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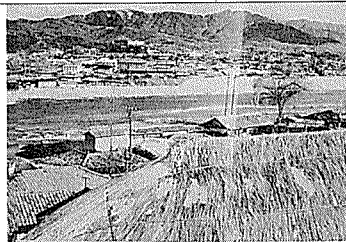
바르셀로나에서의 일이다. 세계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건축가 가우디(A.Gaudi)의 걸작 사그라다 화밀리아를 보고 절망감이 들었다. 왜 우리는, 아니 우리 지역엔 저런 건축물이 없는가. 찬찬히 따져보면 없는 것은 아니다. 망선루, 남석교, 상당산성, 충주 관아, 미륵사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어딘지 허전한 것은 왜일까. 사그라다 화밀리아가 웅장하거나 빼어나서가 아니다. 저런 상상력을 우리가 키우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절망한 것은 거의 백년을 두고 끊임없이 지으려고 하는 까탈로니아 지방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열정이었다. 만약 우리가 백년을 두고 짓는 건축물이 있다면, 아니 지으려고 한다면 모르긴 해도 그 못지 않은 작품을 남길 것이 분명하다. 바르셀로나(Barcelona)에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가우디의 걸작들을 보러 온다는 케밥 파는 주인의 자랑에 나는 그만 주눅이 들어 버렸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절망하거나 주눅들 일인가? 우리가 파리의 개선문이나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성바실리카 성당과 같은 건축물이 없다고 해서 잘못이라도 했던 말인가? 그 지역엔 그 지역에 맞는 건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또 그러한 건축물은 분명히 있다. 바자울 강담에 물매 산 개울가 초기지방의 아름다운 우리 건축, 아니 그냥 집이 있다. 삶의 현실과 맞고 환경과 어우러지는 건축이라야 의미있는 것이므로 함부로 절망하거나 주눅들 일은 전혀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인가? 우리가 잠시도 탈출할 수 없는 숨막힐 듯한 시멘트 숲은 우리의 영혼을 무수히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 딱딱한 돌집 안에서 어떻게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이 가능할 것인가? 파시즘의 폭력이라고 해야 할 저 무시무시한 실용주의 건축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옥의 연극을 하고 있는 뼈에로... 예술적 아름다움과 민족의 정서를 나타낸 건축이 아니라 효용성만을 따지려는 천박한 경제제일주의 건축을 우리는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저 획일적인 무국적 건축은 대체 어째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인가! 나는 매일매일 제1세계의 금융독점자본이 명령하는 실용주의 건축을 증오한다. 특히 건축에서의 서구 중심 또는 일본적 인력(引力)과 물신주의적 경향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우리의 건축을 가져야 한다. 당연하고도 당연한 논리 아닌가?

우리 근대건축의 두 명제는 아마도 ①반봉건 근대 시민(민중)건축 ②반외세 민족건축이라는 두 지향점일 것이다. 과거 우리 건축이 이 두 명제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세의 봉건건축 양식에서 근대의 시민건축으로 이행했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이식건축이 민족건축과 민중건축을 몰아내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한 사실은 잘 증명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주의 정신을 가진 근대 시민건축(민중건축)과 우리의 형식을 잘 살릴 수 있고 우리 삶에 잘 맞는 민족건축을 하루하루 정립해야만 한다. 건축이 아름답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또한 건축이 실용주의적이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건축이 초역사적이고 초현실적이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건축의 영원성과 예술성은 민중적일 때 얻어지고 민족적일 때 확보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는가?



경주 홍덕사지 고인쇄박물관 (사적 31호)



1960년대초 청주 무심천변



충북예술제